

보도

대학과 지역사회, 추운 겨울 오고 가는 따뜻한 마음

#. 우리학교와 지역사회 역시 지난 몇 년간 끈끈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예를 들어 경희 몰래산타는 지난 2007년부터 지역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하고 있다. 또 학교 주변 후원의 집은 2005년부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후원에 왔다. 우리신문은 연말을 맞아 경희 몰래산타들이 전하는 크리스마스 선물과 후원의 집이 보내온 따뜻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봤다.

최병헌 기자 chbh1027@khu.ac.kr
류제원 기자 jennyoo95@khu.ac.kr

① ‘몰래산타’ 그들이 건넨 크리스마스 선물

‘몰래산타’는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이 지난 2007년부터 주관하는 프로젝트다. 학생 자원봉사자 200~300명으로 이뤄진 산타와 루돌프들이 크리스마스에 회기동 지역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홀몸 어르신들을 찾아가 선물을 전달한다. 지난해에도 그들은 학교 주변의 80여 가구를 방문해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어르신들을 위한 방한용품을 건넸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올해의 활동에 앞서, 작년 몰래산타의 훈훈한 일화를 소개한다.

#1. 산타가 데려온 터닝메카드

작년에 아이들 사이에서는 변신 로봇 애니메이션 ‘터닝메카드’가 제일 인기였다고 한다. 아이들을 위해, 한 몰래산타가 터닝메카드로 변신했다. 직접 상자를 자르고 붙여 의상을 만들고, 가면을 쓰고, 장난감 칼도 뽑아 들었다. 그렇게 변신한 산타는 집 앞에 찾아가 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명장면을 재현했다. ‘터닝메카드’의 뒤로 여

러 산타가 열심히 연습한 캐럴도 불렀다. 당시 터닝메카드 캐릭터로 분장했던 몰래산타 이육용(체육학 2010) 군은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때 세상을 다 가진듯한 표정은 잊을 수가 없어요.”라고 소감을 표했다. 심지어 몰래산타 행사 다음날에는 아이들에게서 “산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엄마 말 잘 듣고 있을게요. 내년에도 또 봐요!”라는 연락이 왔다는 후문이다.

#2. 고장 난 문손잡이 밖 손님들

작년 크리스마스에, 이문동 골목 어귀에 사는 홀몸 어르신 A 씨의 댁에 몰래산타들이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반가운 마음에 문을 벌컥 열려했던 A 씨, 하지만 평소 잘 열리지 않던 문손잡이가 또다시 말뚝을 부렸다. 몰래산타들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자, 할아버지는 급한 마음에 그만 문손잡이를 부수고 말았다. 애써 문을 연 할아버지는 반갑게 말했다.

“밖에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추웠을텐데 고생했어요. 문손잡이는 내가 고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몰래산타는 이날만큼은 할아버지의 손자손녀가 되어 도란도란 담소를 나눴다. 부서진 문손잡이는 이후에 지구사회봉사단 관계자들이 찾아가 수리했다고 한다.

#3. 눈물로 확인한 우리는 하나의 경희인

몰래산타는 학내 관리·미화 노동자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몰래산타들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학내 구성원을 위해 수고하는 경비원과 미화원을 찾아가 직접 만든 초콜릿과 손 편지를 전하며 ‘경희 부모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는 행사를 했다. 몰래산타 하명수(경영학 2011) 군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나니까 경희 어머니 아버님들이 힘껏 안아주셔서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 날 학내 노동자들은 몰래산타들에게 따뜻한 울무차와 손 편지를 전달하며 다음과 같은 인사를 표했다고 한다.

“우리 아들딸들, 한참 놀아야 할 시기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고 또 안쓰러워. 이렇게 착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 학생들!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 사랑해”

올해도 몰래산타들은 크리스마스에 회기동 곳곳을 돌며 지역사회에 사랑을 건넬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위해 오랫동안 기부해온 ‘후원의 집’을 찾아가 고마움을 전할 예정이다. 산타들의 활약으로 올해 크리스마스이브도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될 것이다.

② 후원의 집이 12년간 전해온 경희사랑

경희 후원의 집은 지난 2005년부터 지역사회와 학교의 상생과 발전을 목표로 시작된 사업이다. 학교 주변의 여러 점포들이 모여 학교 측에 장학금을 후원해 우수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2005년 이후 누적 134개(서울 83개, 국제 51개)의 점포가 가입되어 있으며, 2016년 현재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업체는 서울캠퍼스 인근 26곳, 국제캠퍼스 인근 21곳 등 총 47곳이다.

우리신문은 이 중 서울캠퍼스 인근의 26개 업체들 중 업종 별로 20년 가까이 자리를 지킨 세 곳을 뽑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 학생들과 복작대며 꾸러지는 문구점

정문 앞 모닝글로리 문구사를 운영하는 지영근 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그는 1995년 회기동에 작은 매장으로 문구점을 시작할 때부터 학생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매장에 나와 있다 보면 학생들과도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학생들 힘든 것도 알게 되고 그러죠...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서 적은 액수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 벌써 12년이나 되었네요 (웃음).”

그러면서 그는 학교에 기부한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고 한다. “나는 늘 학생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이니깐, 학생들로부터 젊은 에너지를 많이 받죠. 그런 면에선 난 참 고마워요, 학생들이.”

#2. 인쇄소가 찍어낸 인연

“나한테는 경희대가 참 뭐랄까, 가족 같아요. 내가 20년 넘게 학교 팸플릿이나 영어신문사 <The University Life> 이런 걸 맡아서 인쇄하다 보니까 학교에 정이 간다고 해야 하나? 가족이죠, 가족.”

우리학교에 팸플릿 등을 납품하는 청솔 디자인의 최해규 사장은 1993년 회기동에 처음 자리를 잡았다. 24년이라는 긴 세월만큼 그에게서는 학교에 대한 애정이 가득히 묻어나왔다.

“학교에 행사가 많을 때, 같이 일하고 같이 밤새다 보니까 학교 교직원들과 한술밥 먹는 식구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우리학교 학생에게

종매를 서서 장가도 보냈단다.

“여기 인쇄 작업하러 오던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사람이 관찰아서 건넌집 슈퍼 딸이랑 종매를 썼어요. 지금? 둘이 결혼해서 가끔 놀러 오고 그러죠.”

그는 경희대가 고맙다고 한다.

“내가 학교에 기부하고 있긴 하지만, 학교로부터 받은 게 훨씬 많아요. 좋은 인연도 만나고, 내가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3. 아들 같은 학생들 위해 시작한 기부

지난 2002년부터 달짝지근한 돼지불백으로 식사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북적거리는 솔남구 식당 박태준 사장은 대학생인 아들이 생각나 기부를 시작했다.

“처음에 학교 측에서 먼저 제의가 왔어요. ‘학생들을 도와주는 건데 하실 의향이 있으시나?’ 이러기에 아들 생각이 나서 하겠다고 했죠. 그때 마침 아들이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후원이 올해로 10년째다.

“사실 많이는 못 해요. 그래도 밑알만큼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꾸준히 하고 있죠.”

가끔 갖는 후원의 집 장학생들과의 만남이 그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간다고 한다.

“학교에서 후원의 집 행사가 있으면 내가 꼭 가요. 가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만나서 보고 있으면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적은 돈이라도 계속 기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원의 집 업체들이 학교 주변에서 묵묵히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한 지도 벌써 12년째다. 이들에게서 본인이 학교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는 뿌듯함이 느껴졌다. 인터뷰 말미에 사장님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입을 모아 말했다. “내가 학교에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아요.”

2016년 겨울, 올해도 학교와 지역사회는 따뜻함과 고마움을 주고받는다.

사과 먼저 vs 앞으로의 대안 모색 아동가족학과 학점교류

김도엽 기자 wogmd567@khu.ac.kr

지난 달 29일 서울캠퍼스 생활과학교대 507호에서 아동가족학과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의 최대 관심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학점교류 승인 문제였으며, 그 외에도 보육실습비 지원 확대,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등이 이어졌다. 논란이 되는 ‘학점교류 인정에 관한 규정’은 ‘학점교류로 취득한 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된. 단, 전공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이다. 지난 9월과 10월에 학점교류 승인 문제에 관한 대자보를 쓴 금혜린, 유미래, 조가람, 조다현(아동가족학 2012) 학생은 아동가족학과의 전공선택 과목인 ‘정신건강’ 과목을 숙명여대와의 학점교류 시스템을 이용해 이수했고 이를 전공학점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아동가족학과 김연하 학과장은 불허한 바 있다. 불허 이유로는 첫째, ‘표준교육개요에 어긋나는 커리큘럼과 자격증 취득의 어려움’ 탓에, 둘째, ‘학과회의에서 의결돼 수년 전부터 적용됐던 원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통지됐다.

간담회에서 이민주(아동가족학 2014) 학생회장은 타 대학 학점교류 승인 기준을 설명하면서, “대학 학칙엔 명시돼 있지만, 아동가족학과 규정에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며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생활과학대학 오윤자(아동가족학) 학장은 “이번 간담회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현재 명문화된 학점교류 승인 규정이 학칙에 한 줄 밖에 없어,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 이를 생활과학대학 내 명문화

된 규정으로 명시하면 차후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혜린 양은 “대안 모색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문제를 명확히 알고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이 모든 논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학장은 “지난 번에 있었던 일을 또 다시 말하면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는다”며 “아동가족학과 교수님들 중 학생들에게 해를 가하려는 교수님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오학장은 “해당 교수님들에게 문자 혹은 메일로 문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메일, 문자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행정실에 찾아가 문의를 하거나, 해당 교수님에게 면담 요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다현 양은 “학과회의에서 의결돼 수년 전부터 적용됐던 원칙(두 번째 허사유)이 있었다는 것을 아동가족학과 학생들이 몰랐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며 “불허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공지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별님(아동가족학 2012) 양은 “지난 번 회의에서 모 교수님이 반말과 삿대질로 폭언을 한 것에 대해 학생들이 사과를 못 받은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는 간담회라는 공식인 자리에선 부적절한 언행이 없도록 교수님들, 행정실 직원분들, 학생들이 다 같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자리에서 지난 번 논란이 됐던 A 교수의 공개 사과 여부에 대한 문제는 해당 교수의 불참으로 논의되지 못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 명문화에 대한 사례 정리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오케

경희대학교 송년회
Magnolia 2016

목련회의 · 목련음악회

일시: 2016년 12월 16일 금요일 장소: 평화의 전당
1부 목련회의 오후 7시
2부 목련음악회 오후 8시 20분

2016 경희의 한해를 돌아보고 새 희망을 공유하는 목련회의,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지는 선물같은 음악회
“경희대학교 송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P. Tchaikovsky | <Swan Lake> (백조의 호수) 中 Waltz
G. Gershwin | <Rhapsody in Blue> - 임효선(피아노)
G. Bizet | Opera <Carmen> 中 “Chanson du torreador” - 강명규(바리톤)
G. Bizet | Opera <Carmen> 中 “Havanera” - 이아경(메조 소프라노)
J. Strauss I | Opera <Die Fledermaus> (박쥐) 서곡
크리스마스 캐롤 매들리



유주현



김현

문의: 서울캠퍼스 매리텔러처 02)961-0932-3
※ 좌석은 선착순 자유석(무료)입니다.